

DESIGN BEYOND EAST AND WEST

DBEW EXHIBITION 2025

옻칠 Ottchil

The Korean Traditional Lacquered Moment
Time & Tex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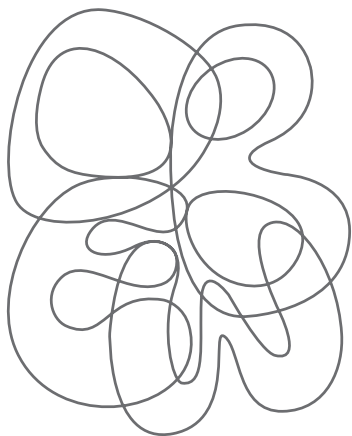
07 APRIL 2025 - 13 APRIL 2025

ADI Design Museum

Piazza Compasso d'Oro, 1,
Via Ceresio, 7
20154 Milano MI, Italy

Planning by 

Creative Director Kyung Ra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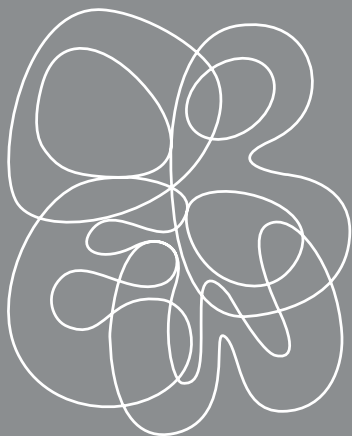


DESIGN BEYOND EAST AND WEST

DBEW EXHIBITION 2025

옷칠 Ottchil

The Korean Traditional Lacquered Moment
Time & Texture



DESIGN BEYOND EAST AND WEST

DBEW EXHIBITION 2025

옷칠 Ottchil

The Korean Traditional Lacquered Moment
Time & Texture

07 APRIL 2025 - 13 APRIL 2025

ADI Design Museum

Piazza Compasso d'Oro, 1,
Via Ceresio, 7
20154 Milano MI, Italy

Planning by **OD**

Creative Director Kyung Ran Choi

OD Collaboration

하지훈

송봉규 with 정은진

백종환

김준영

김치호

정상엽

윤상희 & Interiorfurniture Design Lab

편소정

안은경

이민아

1

나무와 플라스틱, 인류에게 풍요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온 두 재료들의
지속가능한 만남을 전통 옷칠로 이어 지은 현대적 팔각 지붕 티 트레이

OD 하지훈

전통 옷칠과 현대적인 플라스틱 진공성형 기술을 결합하여 시대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옷칠을 한 후 천으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나무 본연의 목리를 살리는 접칠을 사용하여 옷칠의 심미성과 목재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보여주고 플라스틱의 자유로운 형태를 옷칠과 융합하여 전통적 소재를 새롭게 보이도록 하였다. HAN-OK TRAY는 테이블 위에서 트레이 기능과 한옥의 이미지를 차용한 조형적 장식 요소가 되어 옷칠 표현의 다양성과 한국 전통 차 문화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서 옷칠의 우수성과 더불어, 플라스틱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면 친환경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플라스틱의 남용이 아닌, 아끼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진정한 친환경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담았다. 이것이 'HAN-OK TRAY'가보여주고자 하는 차별성과 독창성이다.

Ji Hoon Ha is an artist who overlaps traditional motifs with modern sensibilities, presenting work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industrial design. In 2009, he was selected as a 'Next Generation Design Leader'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in the same year, he was named 'Young Artist of the Yea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is works are housed in institutions such as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in the UK and the Museum of Applied Arts in Frankfurt, Germany.

Hanok Tray | W360 D360 H260 (unit: mm) W360 D360 H230 (unit: mm)

플라스틱 진공성형으로 구현한 삼차원 한옥 형태에 목리를 살리는 접칠 옷칠로 제작된 트레이.



일상의 예술, 다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라믹과 3D프린팅, 전통 옷칠 공예가 어우러진 유기적 형태의 찻잔들

OD 송봉규 with 정은진

초벌된 세라믹과 3D 프린팅에 옷칠을 접목하여 현대적 차문화를 탐구하는 30~40개의 찻잔을 디자인 하였다. 옷칠의 깊이 있는 색감과 질감을 극대화하고 전통적 기법과 최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조형을 제안한다.

옷칠의 시간성을 존중하며, 층층이 쌓이는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확장한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현대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양과 서양의 차문화를 아우르는 디자인 언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차를 마시는 행위를 단순한 습관이 아닌 문화적, 예술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Bong Kyu Song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objects, developing designs in various fields based on industrial design. In 2010, he established BKID and researched the design of everyday products, lighting, and furniture. He has launched several brands, including Matter & Matter, APOP, and MM, and is contributing to the documentation and advancement of design culture through the Seating Seoul project, which archives design chairs.

Teacup 1, 2, 3 2025 | W70 D70 H90 (unit: mm) W65 D65 H100 (unit: mm)

초벌된 세라믹과 3D프린팅으로 출력한 형태에 도칠기법이라는 새로운 옷칠 기법을 접목한 찻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해체되는 탈중심적 동시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자유로운 형태와 스케일, 기능과 관계 미학의 흑반관 옷칠 소반

OD 백중환

‘변죽01’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모두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된 소반이다. 옷칠 기법을 통해 형태와 쓰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탈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접화(接化) 문화의 특성을 모티브로 하였다.

표면 마감으로 사용된 흑(黑)반광 옷칠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과 빛과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색의 풍부함을 가진다. 동양의 좌식 문화와 현대적인 식탁 문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전통 소반보다 높이를 낮춰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적용하였다. 상판은 전통 소반의 변죽 부분이 여러 개의 타원으로 중첩하여 탈중심적 형태로 디자인했고, 옷칠로 마감하여 섬세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중심이 없는 형태는 음다 문화의 차를 마시는 행위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변죽01’은 자연과의 조화,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는 태도,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 단순하고 소박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Space designer Jong hwan Baek established WGNB in 2015. WGNB is an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studio recognized worldwide, including awards such as the IF Awards, FRAME Awards, and Dezeen Awards. Major works include POLENE (Seoul, Paris, London) and SVRN (Chicago, San Francisco), and he also designed lighting in collaboration with Viabizzuno, marking the first time in Korea. Currently, he is working on various space projec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Italy.

Byunjook 01 | W550 D400 H90 (unit: mm)

3D 프린터의 첨단 적층 기술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고, 블랙 무채색의 전통 옷칠로 마감하여 반광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과 빛과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색의 풍부함을 가지는 소반.



봄바람에 만개한 목련 꽃봉오리처럼, 차와 생명, 공예의 아름다움과 온기를 전하는 세라믹 옷칠 찻잔

OD 김준영

차 한잔으로 일상에서 힐링의 시간을 추구하는 ‘멜봄(MELBOM)’은 차를 우려내는 찻잔에 꽃이 피어나 매일 매일이 봄이 되는 바람으로 동양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동양의 형형색색(形形色色) 꽃을 모티브로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고, 찻잔 안쪽의 꽃술은 도자기의 다양한 색감으로 마시는 행위에 더 즐거움을 준다. 맛과 향을 우려낼 때 꽃의 아름다움을 도자기의 따뜻한 색감과 차의 온기를 손으로 느끼면서 즐길 수 있다.

Ceramic designer Jun Young Kim creates designs that blend practicality and artistry at the intersection of art and design, crafting various narratives around everyday objects and presenting new meanings and functions through their utility. He particularly focuses on keywords and messages such as ‘functionality,’ ‘form,’ and ‘poetic language,’ aiming for emotional product design that brings small joys and pleasant experiences to daily life.

Melbom Poppy, Melbom Magnolia | W100 D100 H400 (unit: mm) W100 D100 H600 (unit: mm)

한국의 백자흙을 사용하여 석고몰드를 슬립 케스팅기법으로 형태를 제작하였고, 안쪽 바닥은 옷칠로 채색한 찻잔.



전통 옷칠의 투명함과 가벼움, 중후함과 견고함을 통합한, 지친 현대인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다도용 미니멀 메탈 조명

OD 김치호

옷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고유성은 자연과 자연의 결합을 통한 전혀 새로운 제 3의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다례(茶禮)라는 의식을 통한 과정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도를 위한 조명 즉, 차를 만들고 마시는 행위에 한글을 재구성한 미니멀한 메탈 조명을 결합하였다. 그날그날 페이퍼에 메시지나 시 구절 등을 홀딩하여 그날의 다도 의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 3의 ‘다도의 의미’를 품은 조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옷칠을 통한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아름다운 촉감과 우아하고 미려한 빛의 전달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무한한 다도의 매력을 발산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Space designer Chi Ho Kim talks about the rights to spaces that modern people should enjoy, based on desirable environments, and new spaces optimized for diverse lifestyles. Designer Kim Chi-ho has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the “Light & Technogel” lighting exhibition at the “Salone Satellite Milanp” (2001) and the “Room of a Certain Actress” as an invited designer at the Seoul Living Design Fair Designer’s Choice (2002).

Luce per te’ 2025 | W400 D400 H450 (unit: mm)

선의 형태 위에 숏가루를 첨가한 흑무광 옷칠을 더해, 빛이 머무는 분위기와 차의 향에 집중할 수 있는 질감을 표현한 조명.



천연 물푸레 나무에 옷칠과 알루미늄 색분을 더한,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지는 색상과 결무늬의 조화가 아름다운 차함

OD 정상엽

‘옷칠 차함’은 단순히 찻잔을 보관하는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서, 차를 즐기는 행위 자체를 한층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 ‘옷칠 차함’은 나무로 제작된 간결한 형태와 옷칠의 깊고 다채로운 색감과 표면에 알루미늄 분말을 칠면에 뿌려 한 겹 한 겹 레이어링하는 새로운 옷칠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옷칠의 깊이감과 독특한 질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옷칠의 특성상 내구성이 뛰어나며, 나무 결을 따라 스며든 옷칠의 색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색을 띠게 된다. 이는 차를 즐기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이런 섬세한 작업을 통해, 차를 마시는 순간마다 예술적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옷칠 차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일상에 녹아든 예술로서의 깊이를 지니게 된다. 차별화된 새로운 옷칠 기법으로써 옷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통과 현대, 기능성과 미학이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Lacquer is an artistic medium that transcends its functional use, embodying the passage of time and accumulation. While she bases her techniques on traditional methods, she places great importance on experimental approaches in terms of materials and expression. By integrating lacquer with various materials and forms, she explores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lacquer, creating works that harmonize with a modern sensibility.

Ottchil Tea Box 2025 | W400 D400 H450 (unit: mm)

나무에 알루미늄 분을 뿌린 후 옷칠을 겹겹이 쌓고 연마하여, 옷칠의 깊이감과 독특한 질감을 극대화 한 차함.



밀라노에서 피어난 야생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형태와 기능, 크기 변형이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모듈형 3D 프린팅 옷칠 테이블

©D 윤상희 & Interiorfurniture Design Lab

‘밀라노의 꽃(Milan flower)’은 차를 마시는 이들에게 시각적 미감과 심리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듈형 오브제이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배치할 수 있어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 오브제이면서 동시에 디저트나 너트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밀라노의 꽃’ 오브제는 변화, 창의, 공간, 치유, 아름다운 색감, 시각적 유희를 담고 있어 한국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차 문화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3D 프린팅으로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복제와 변형이 가능하여 작품의 구성 및 크기가 자유롭다. 표면 마감을 옷칠로 하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한국의 미적 정서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밀라노의 꽃’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처럼 변형이 쉬운 오브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차를 마시는 여유로움과 차를 마시는 동안에 느끼는 즐거움의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Sang Hee Yoon explores forms that combine traditional lacquer craft techniques with various craft skills. Utilizing the replicability of traditional lacquer techniques and 3D printing, she freely composes size and shape. To express rich colors and organic forms, Yoon Sang-hee transcends various materials such as metal, wood, ceramics, hemp, hanji (Korean paper), and 3D printing, possessing her own colors and identity through the diverse color expressions of lacquer.

Milan flower | W390 D400 H405 (unit: mm)

3D 프린팅을 활용한 PLA 표면에 교칠로 텍스처를 준 옷칠 테이블웨어.



순수 자연재료에 상감 협저 기법(건칠)의 회화적 붓결의 질감을 더해 마감한, 자연의 장엄함과 섬세함을 머금은 칠기

OD 편소정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건칠 함지’는 옷칠 자체로 단단한 표면을 만드는 기법인 건칠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했다. 건칠은 찹쌀풀과 생칠을 섞은 혼합물을 천에 바른 뒤 겹겹이 쌓는 과정을 여러날에 걸쳐 형상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기법이다. 건칠을 위해서 만든 틀은 ‘열수축필름’을 씌워 유기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서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한 가볍고 유연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형상 위에는 옷칠과 흙의 혼합물인 토회를 활용해 경쾌한 느낌의 붓결의 질감으로 마감했고 두 가지 명도의 색상을 상감하여 텍스처가 도드라져보이도록 의도했다. 이러한 회화적 방법의 마감 덕분에 독특하고도 맑은 색감의 칠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So Jung Pyeon is working on craft projects for ‘the space that the human body holds, the space that holds people’ using lacquer materials. This includes lacquer bowls, side tables, and other items, as well as larger projects for indoor spaces such as walls, doors, handles, and ceilings where people stay. She focuses o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lacquer to create lightweight yet sturdy forms, completing the surfaces with her own unique colors and textures.

Dry-lacquer Basin | W470 D470 H170 (unit: mm)

회화적 기법을 응용하여 붓으로 한겹 한겹 그려 만든 칠기의 형상과 결을 보여 준 함지.



전통 옷칠 공예와 친환경 수지(PLA) 3D프린팅의 만남, 곡선과 직선, 평면과 곡면의 융합으로 탄생한 감각적 유선형 다기

OD 안은경

전통적인 공예 기법인 옷칠과 최신 테크놀로지인 3D 프린팅을 상호 대조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다. 특히, PLA라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접근을 하였고, 옷칠을 통해 3D 프린팅의 차가운 기계적 질감을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으로 변화시켜 전통과 현대,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작품의 시각적 특징은 선의 대비와 융합이다. 3D 프린팅의 특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곡선과 기하학적인 직선을 정교하게 결합하였는데, 두 요소는 서로 대립되지만 하나의 형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찾아낼 기르고, 따고, 말리고, 우려내는 시간은 옷칠의 작업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두 과정 모두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와 시간이 결합되어, 그 자체로 깊이와 의미를 쌓아간다. 이를 통해 촉각적 경험과 시각적 감각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Artist Ahn Eun-kyung creates crafts by combining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such as lacquerware with modern technologies like 3D printing and metal processing. Through the harmony of contrasting techniques, she produces functional objects that possess modern form and aesthetic appeal. She shapes forms using new technologies and applies lacquer to complete surfaces with depth.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crafts that connect tradition and modernity, she studies forms that feel both familiar and new.

In the Flow_rising, In the Flow_wave | W200 D200 H220 (unit: mm) W300 D250 H100 (unit: mm)

3D 프린팅으로 정밀하게 구현한 직선과 곡선이 융합된 친환경 수지 기물에 옷칠을 한 층씩 올려 따뜻한 색감과 깊이 있는 질감을 더한 공예품.



OD 이민아

아티스트 Oxlmox(이민아)는 옷칠의 질감, 형태, 움직임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이를 자연물과 조합하여 독창적인 미디어아트 패턴을 선보인다.

전통 공예의 물성을 디지털 기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의 핵심 개념인 자연과 인간, 예술이 맞닿는 생태학적 감각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옷칠은 미디어아트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되어, 자연과 기술의 공존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패턴은 공예와 디지털 매체의 경계를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동시에 동시대적 감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읽힌다.

A visual artist based in both South Korea and Italy, sh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ranslating imaginary worlds into reality through various media with a focus on ecological art. Her work spans across genres, including experimental film, hand-drawing, metal and ceramic sculpture, and sound design, all with an emphasis on expanding the forms of art and sensory experiences. She constructs psychological landscapes within the organic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ity, expressing them in unique and impactful ways. Supported by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Italian Tourism Board, Benetton Art Residency Fabrica, and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he continues to present solo exhibitions and group projects, engaging in experimental endeavors that combine art and ecological thought.

Connection of green: Ottchil, oh chill 2025 | 2564 * 256 (pixel) 2분 15초



OD Archiving

OD X Alessandro Mendini

OD X Stefano Giovannoni

OD X Stefano Giovannoni

OD X Daniel Libeskind

2

Geometrica × Alessandro Mendini

‘지오메트리카(Geometrica)’는 OCDC(Oriental Culture Design Center)와 한국도자기(Hankook Chinaware)가 기획하고 세계적인 거장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가 한국의 전통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제품이다. ‘지오메트리카’는 멘디니의 감성적 디자인과 국내 최초 정통 본차이나 기술력의 정수를 담은 한국도자기의 하이엔드 테이블 웨어 브랜드 프라우나의 만남으로 탄생하였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한다” 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명언처럼, 하이엔드 테이블웨어 브랜드로 식기를 넘어 하나의 마스터피스로의 승화를 추구하였다. 24K골드를 사용한 ‘지오메트리카’는 유려한 곡선형태와 기하학적 원형의 손잡이, 나뭇잎을 형상화한 잔받침이 어우러져 티타임의 포인트가 되어준다.

Alessandro Mendini, a master Italian designer who has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ADI's Compasso d'Oro, is a chair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where he collaborated with many companies and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Korean design education and industry, starting with his first visit to Korea in 1994. He served as a chair professor and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Alessandro Mendini notably showcased a pavilion design inspired by Korean colors and patterns at the 2010 Seoul Design Hanmadang. Over more than two decades, Mendini has collaborated with Korean ceramics to innovate products, organized the 2013 OCDC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led training programs for modernizing traditional crafts under the Oriental Institute of Culture and Design. His efforts aim to boost global design branding and foster sustainable growth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tributed to the 2015 Pre Gwangju Design Biennale promotional exhibition at the Triennale di Milano Museum through collaboration of unique shapes of modern artist who inherited Korea's Beauty and the Pattern design of 30 Italian designers.

Geometrica | W102 D102 H68, W185 D185 H20 (unit: mm)

W200 D115 H205 (unit: mm) W110 D60 H75 (unit: mm) W60 D60 H110 (unit: mm)

본차이나, 24k 도금.



Mini Men x Stefano Giovannoni

다른 이들과 앉아서, 기어오르거나 낚시하며 노는 미니맨... 한 가정주부의 티셰트가 순식간에 미니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 미니맨의 양증맞고 묘사적 제스처는 버그 손잡이나 티백 홀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오반노니 디자인의 매력은 고전주의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우아한 입과 베이스의 전형적 서양 주방 기구의 영광을 재현하는 동시에, 익살맞으며 접근하기 쉬운 동시대적이란 점에 있다. 동양의 찻주전자와 손잡이, 찻잔과 홀더는 절묘하게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이 컬렉션은 인종적 및 문화적 뒷 배경과는 상관 없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국제적 디자인 언어를 창조하기를 목표하고 있다.

Stefano Giovannoni, Italy's leading industrial and architectural designer, has collaborated in design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s the representative of Qeeboo. As the curator of the Gwangju Branding Exhibition at the 2015 Gwangju Design Biennale, he applied the concept of fusion of Eastern and Western values and showed new values and designs by meet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astern culture and Western design. It was a plan to accumulate a series of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and know-how, including planning, design,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a collaborative proc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growth as a global brand for a local company to become a differentiated design company.

Mini Men | W200 D200 H220 (unit: mm)

본차이나, 24k 도금.



Vaso Animal, Vaso Faccia × Stefano Giovannoni

Face and Animal

인간의 얼굴과 동물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두 작품 간의 관계가 우리의 기억과 상상력이 연결된 감정을 암시하는 형이상학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Stefano Giovannoni, Italy's leading industrial and architectural designer, has collaborated in design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s the representative of Qeeboo. As the curator of the Gwangju Branding Exhibition at the 2015 Gwangju Design Biennale, he applied the concept of fusion of Eastern and Western values and showed new values and designs by meet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astern culture and Western design. It was a plan to accumulate a series of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and know-how, including planning, design,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a collaborative proc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growth as a global brand for a local company to become a differentiated design company.

Vaso Animal, Vaso Faccia | W450 D220 H115 (unit: mm) W465 D120 H480 (unit: mm)

3D프린팅에 옷칠.



Soban × Daniel Libeskind

과거의 흔적 그리고 해체라는 조형언어로 집약되는 리베스킨트의 소반. 그는 우리의 기억과 맞닿아 있는 전통에 대한 흔적을 한복에 나타난 등글려진 곡선과 버선코의 곡선이 이루어내는 아찔한 정교함으로 보았다. 순수단위인 곡선이 만나고, 나누어지며 만들어 진 비례의 미는 부드러움과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우리 미의 질서와 닮아있다

Daniel Libeskind is a globally recognized figure in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He is widely known for presenting multifaceted approaches and new discourses in the architectural community. His work has expanded from major cultural and commercial buildings, such as museums and concert halls, to convention centers, universities, residential buildings, hotels, shopping centers, and housing projects.

He is currently involved in a diverse and extensive range of architectural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the Military History Museum in Dresden, Germany; the Grand Canal Performing Arts Centre and Galleria in Dublin, Ireland; CityCenter and Zolta 44 on the Las Vegas Strip in Nevada, USA; residential high-rises in Warsaw, Poland; the redevelopment of the historic Fiera Milano exhibition center in Milan, Italy; the Haeundae U-dong Hyundai I-Park; the Keppel Bay development in Singapore; the Riverstone Center development in Songdo, Incheon; and the Creative Media Centre in Hong Kong.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major museums and galle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buildings he designed have graced the covers of publications such as Time, Newsweek, Architectural Record, and The Wall Street Journal. In November 2008, he published a book with Pulitzer Prize-winning architectural critic Paul Goldber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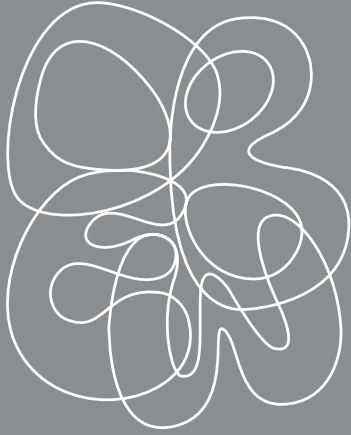
Soban | W800 D500 H400 (unit: mm)

인조대리석에 옷칠.









DESIGN BEYOND EAST AND WEST

DBEW EXHIBITION 2025

옷칠 Ottchil

The Korean Traditional Lacquered Moment
Time & Texture

